

보성군, 지방재정 컨설팅으로 현안사업 방향 다잡는다

지방투자 사업관리센터 전문가와 투자심사 전략 머리 맞대 여자만 국가갯벌 정원 조성·별교갯벌 복원사업 등 자문 구해

보성군은 21일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서 진행되는 '찾아오는 탐나는 컨설팅'을 진행해 지역 현안사업 추진 전략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컨설팅에는 투자센터 이삼주 소장, 김상기 박사, 청주대 손희준 교수가 전문가로 초빙되었으며, 보성군

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 1:1 면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사업 담당자가 직접 참가하여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미래세대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장성,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등에 초점을 맞춰 상담이 이루어졌다.

보성군은 △여자만 국가갯벌 정원 조성사업(2,500억원), △별교갯벌 복원사업(180억원), △남파랑길 명품화 재생사업(365억원) 등을 준비했으며, △보성하수처리장 증설 사업(120억원)과 중앙 투자심사를 앞두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했다.

이번 컨설팅에서 최종 선정된 사업은 전라남도도에 건의하여 '전라남도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반영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보성군에서는 매년 신규 사업을 발굴해 정부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3대 SOC프로젝트와 5대 뉴딜을 추진해 기존 사업들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규모화에 초점을 맞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보성=김덕순기자



광양시,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 개최

청년정책협의체 역량 강화 위해 서울시 청년청과 연계한 교육 실시



광양시는 지난 22일 광양청년포터에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작년 처음으로 구성된 광양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들이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스스로 발굴·제안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기본강의와 정책과정을 직접 체험해보는 의제 발굴 워크숍 순서로 진행됐다.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으로 새롭게 위촉된 6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수하는 시간도 가졌다. 시는 '청년의 참여는 왜 중요한가',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등 청년정책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한 기본강의와 함께 타 지역의 청년정책 사례를 공유하며 청년 참여의 중요성을 알렸다. 또한, 피실리테이터(진행자)와 함께하는 분과별 그룹토의를 통해 정책결

정과정의 전체 프로세스를 경험하고 앞으로 청년정책협의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했다. 조진미 전략정책실장은 "이번 워크숍이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청년위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광양시 청년대표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발굴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는 서울시 청년청에서 교육을 희망하는 지역에 직접 찾아가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각 지역의 우수 청년정책 사례를 전파하고 청년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 등을 교육하는 사업으로, 광양시에서는 처음으로 개최했다. 광양=심종섭기자

순천시, 웹툰·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 온택트 투자유치설명회

전남도와 웹툰 산업 육성·기업유치에 최선

순천시는 21일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에서 전라남도도와 공동으로 유튜브 채널('순천시'·'오피스남달')를 통해 온택트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미래형 첨단 산업 생태계 변화에 맞춰 웹툰·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으로, 관심 있는 누구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여했다. 순천시와 전라남도도는 작년에 콘텐츠산업 청년일자리 창출 리소어링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미스터블루, 동우에이앤이 등 21개의 웹툰 및 애니메이션기업을 유치하여 195명을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고 있다. 특히, 순천시는 2020년 호남최초 글로벌웹툰센터를 구축하고, 순천시·순천대학교·정암대학교 만화문화산업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인력역량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선도적 만화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투자일자리와 조점수 과정은 "순천시와 전라남도도는 웹툰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순천시와 전라남도도의 웹툰산업 투자유치 계획과 지원에 대해 소개하며 잠재적 투자자 및 기업과 실시간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여수시, '수해 예방' 용수 소하천 정비사업 본격 추진



여수시가 재해예방을 위해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수해가 발생되고 있는 용수 소하천에 대

한 본격적인 정비사업에 나섰다. 용수 소하천이 있는 둔덕동 일대는 통수단면이 협소하고 제방이 낮아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재해 발생 위험 지구다. 시에 따르면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용수 소하천 0.96Km 구간에 국비 31억여 원 등 총 사업비 61억여 원을 투입해 하천 개수, 교량 7개

소 정비, 호안 블록 설치로 재해 예방에 나선다. 특히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로 하천생태계 보전 및 친수환경을 만들어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다목적 0.96Km 구간 국비 30억·시비 30억 등 총 61억 투입 자연친화적 하천 정비로 생태계보전 및 친수환경 조성 사업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용수 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보상 협의를 시작했으며, 2021년 상반기에 보상을 완료하고

을 하반기부터 공사를 착수해 2023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여수시 건설과장은 "이번에 정비하는 용수 소하천은 하천의 본래 기능 치수, 이수를 병행한 아름다운 생태하천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예방에 만전을 기해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계획이며, 공사기간 시민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여수=오상호기자

고흥군, 동해피해 농작물 복구계획 마련

유자 등 23개 품목...2392농가에 피해복구비 지원

고흥군은 1월5일부터 10일 사이에 발생한 한파로 동해피해를 입은 유자, 참다래 등 동계 농작물에 대하여 피해정밀조사결과를 지난 5월 18일까지 완료하고 피해복구 계획을 마련하여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지난 1월 12일부터 5월 13일까지 4개월여 간의 농작물 피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자 717ha를 비롯한 참다래 등 23개 품목에 794ha가 동해를 입은 것으로 최종 확인하고 복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되는 피해복구비는 해당 농작물을 대체 식재(파종) 하거나 수세를 회복시키는데 사용되는 대파대와 농약대에 23억원이며, 농가단위별 피해가 50% 이상을 차지한 농가에 대해서는 생계지원비 13억원까지 더해 모두 36억원으로 2,392농가가 해당된다. 이 밖에도 농축산 경영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 중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에는 이자감면 및 상환연기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와 별도로 재해대책 경영자금이 필요한 60농가는 4억7천6백만원의 용자를 지원받게 된다. 기동취재본부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간격거리를 두어 주세요!